

1987년 1월 4일자 <기독교신문> “改宗實記”에 연재

## 유성준 장로

이덕주

1885년 당시 청나라 駐朝鮮 총리 袁世凱 휘하에 기독교인이 있어 고종황제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진상하려 하다가 조선 정부 대신들에 의해 중간에서 압류 당하고만 사건이 벌어져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조그만 외교적 마찰을 빚은 일이 있었다. 비록 알렌·언더우드·스크랜튼·아펜젤러 같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입국해 있었으나 조선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완강한 저항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06년 4월 25일 언더우드·에비슨·밀러 등 세 명의 선교사들은 고종을 알현하고 4, 5 활자로 인쇄한 <신약전서 국한문> 2권을 진상하였다. 이것을 받은 고종은 “대단히 좋소. 이 책 만들기에 큰 힘이 든 줄 아오”하였다.

과연 큰 힘이 드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찍어내는 일에 힘이 들었다기보다는 성서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국왕에게 전달되기까지, 기독교가 邪敎가 아닌 眞敎로 인식되기까지 기울인 선교사와 조선의 첫 교인들의 노력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왕이 받아 보고 칭찬해 마지않은 성서 <신약전서 국한문>을 번역해 낸 인물 兪星濬의 이야기이다.

### 정치적 야망

호는 菡齋. 1860년(철종 11년) 9월 7일(음) 서울 계동에서 명문 兪鎭壽의 3남으로 출생. 바로 윗형이 개화운동가로 유명한 兪吉濬이다. 유길준은 일찍이 실학자 朴圭壽 문중에 들어가 개화사상을 터득했고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유학, 게이오(慶應)의숙에서 수학했고 1883년에는 건미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미국 유학까지 한 개화인이었다. 이같은 형의 영향을 받아 유성준도 개화를 통한 정계 진출에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 유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것이었다.

“나는 서울 계동에서 1860년에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자님의 가르침만 따르는 완고한 집안이었다. 중국 고전을 배워가면서 깨달은 바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가르침 속에 있는 유교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종교들은 사교적이며 위험한 것으로 보고 그런 종교 교리는 마땅히 무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1883년 그에게 일본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형의 주선으로 정부에서 학비를 지급하는 유학생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형이 다니던 게이오의숙에 입학하여 정치에의 꿈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게이오를 떠나야만 했다. 1884년 12월 국내에서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개화파 지도자들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망명길에 오르고 정세가 수구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일본 유학생들에 대한 학비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형 유길준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결국 그는 게이오를 떠나 아오야마(靑山)학원으로 옮겼다.

아오야마학원을 택하게 된 것은 이수정에게 세례 준 바 있는 일본인 목사 야스가와(安川亨)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었다. 아오야마학원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로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기독교 학교엘 가고 매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마음속으로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임시방편으로 보조받으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믿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싶지도 않았다. 사실 교장은 내게 믿으라고 간곡히 권면하였지만 나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학교로 옮기든가 아니면 귀국하려고 하였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임시 방편으로 선택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아직은 없었다.

1885년 초 그는 또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일본에 갔 도착한 미국 감리회 선교사 아펜제러(H.G. Appenzeller)의 어학선생이 되어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보다 더 가까이 기독교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그는 폐쇄적이었다.

그 해, 조선정부는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정리의 일환으로 일본 유학생 귀환의 길을 터 주었다. 형 길준도 그 해 12월 귀국한 후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

1894년 개화파의 득세를 알리는 갑오개혁이 거행되고 이듬해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개혁 내각이 조약될 때 유성준은 農商工部 회계국장으로 임명되어 관계 진출에의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1896년 俄館播遷 후 친로파 세력이 득세하고 김홍집·조병하·어윤중 등 개화세력 거두들이 사해 당하는 변란 속에 그는 1896년 2월 내부협판 자리에 있던 형 길준과 함께 또다시 일본 망명의 길을 올랐다.

10년 전 일본에 갈 때엔 유학의 꿈을 갖고 갔으나 이번엔 정치 망명객으로 좌절감을 갖고 가야만 했다. 술과 도박만이 그의 위로가 되었다.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1896년 4월 러시아 방문차 토오교에 들렀던 기독교인 尹致昨가 선교사들 주택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던진 말이 이를 증명한다.

“비록 우리가 기회를 잃고 나라를 구하는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다고 해서 경거망동해선 안된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 하물며 서양인들과 섞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공자님의 正說을 배반하고 것처럼 사악한 종교를 믿어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이같은 저속한 생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자네와 나 사이의 우정은 깨질 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黨과도 관계가 단절되는 걸세!”

그는 자기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정치에의 야망은 식을 줄 몰랐다. 전통 유학을 통한 정계 진출에의 꿈이 너무도 강했기에 가까이 접근해 온 기독교에 관심 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계획대로만 되어 가지 못했다. 일본 망명 3년을 술과 도박과 함께 재기를 잡으려는 음모로 일관하였다.

### 또 한번의 좌절

아관파천(1896년) 이후 득세하였던 친로파 세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1899년에는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갱질되고 친로파 거두 이용익이 거세되는 등 개화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가 전개되었다. 여기엔 일본의 이노우에(井上馨) 이토오(伊藤博文) 등이 펼치는 침략적 외교 공세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 망명중인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관용 정책이 수행되어 1899년 유성준은 정부의 사면약속을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은 하였으나 국내 정세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못했다. 개화당에 대한 반감은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1897년에 일어난 민비 시해사건과 춘생문사건, 단발령에 대한 민중의 감정은 반개화적인 요소가 강하였다. 거기에 일본의 외교적 침략을 규탄하는 전통 유학세력의 상소와 의병운동은 일본 유학생 출신의 유성준에겐 불리한 요인이었다. 그의 정치적 배경인 형 길준과 박영효는 일본에 묶여 있는 형편이었고 조정에서는 甲申殘黨에 대한 척결이 계속 거론되고 있었다.

게다가 서재필 윤치호 등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던 독립협회 운동도 반체제운동으로 돌려 그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단체 해산이 자행되고 있어 분위기는 사뭇 유성준에게 불리한 것 뿐이었다.

여기에 그에겐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건이 터졌다. 형 길준이 관련된 소위 「日本 留學生 革命血約事件」이었다. 이 사건은 1902년 2월 강화 지방태 정위 柳東根이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참위 權浩善 이하 張浩翼 趙宅顯 金鳳錫 金義善 金亨燮 金教先 등 일본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체포된 사건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유길준·박영효 등과 모의하여 국내에 들어와 ① 대황제를 폐하고 ② 황태자도 폐하고 ③ 의친왕을 국왕으로 삼고 ④ 유길준 조의연 등을 중심으로 한 새정부를 조직하려했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소위 정부 전복음모를 기도했다가 사전 발각되어 쿠데타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체포된 사건이었다.

유일한 증거물인 일본에서 작성되었다는 1900년 작성의 ? 명외에 金鴻鎭 姜容九 方泳柱 張寅根 李基鈺 權承錄 金鴻南 金寬鉉 등 8명이 추가되어 모두 15명의 날인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1900년을 전후로 귀국하여 구한국 부대장교로 임관되어 서울과 지방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다가 강화에 있던 권호선을 필두로 체포된 것이다.

이 사건은 음모계획의 확실성 여부를 떠나 수구파 세력의 개화당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색깔이 짙은 것이었다. 1898년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등 그 지도자들을 구속한 것, 1899년 탈옥했던 이승만이 다시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은 것, 1901년 현 정부를 전복하고 일본에 있는 박영효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세우려했다는 죄목으로 배재 학생 申興雨, 일어학교 학생 尹始鏞 등을 체포한 것, 1900년 폭탄으로 수구파를 제거하려 했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高永根 일당 사건에 연루되어 鄭 喬 등이 체포된 것 등은 이러한 정부의 강경 방침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유성준 자신은 위 일본 유학생 혈약서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다만 유길준의 동생이고 조택현 권호선 등과 지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체포되기 직전, 정보를 알려주고 도망칠 것을 권고하는 친구가 있었으나, 그는 그냥 앉아서 체포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에서라기보다 망명생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1902년 한 친구가 와서 警衛院 총장 이근택이 나를 체포하려 한다고 알려 주면서 도망치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나는 이제 도망치는 것도 지쳤오. 조선에서 옥살이 하는 것이 외국땅에서 망명객으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 하였다. 이튿날 아침 체포되었고 경위원에 끌려가 일본의 조선 정부 전복음모와 관련이 없는가 여부를 추궁 받았다. 이근택에게 사건 전체가 허구일 뿐이라고 말해주었으나 그는 나를 포박하여 며칠 후 감옥으로 이송하였고 거기에서 대단히 화가 나있는 이용익을 만나 다시 심문을 받았다.”

그의 무죄 주장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심한 고문이 가해질 뿐이었다.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었기에, 그리고 그의 형이 유길준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은 더 심했다. 정부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심문과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성감옥서 안에 수감된 죄수 중 억울한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다. 거의 같은 정치적 희생물로 체포된 인물들이 있었다. 앞서 체포된 이승만, 신홍우 외에 유성준과 같은 날 체포된 李商在, 李承仁 부자, 李原兢, 金貞植, 洪在箕 등이 그들이었다. 이상재, 이원금 등은 민영환을 수반으로 한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구데타를 일으켜 정부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잡혀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유성준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정치범들이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좁은 감방 안에 수감되었는데 너무 좁아 앉거나 눕기조차 편하게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같은 감방 안에 잡범들도 있어 어투와 행색들이 말이 아니었다. 감옥 규칙에

따라 글 한 장 읽을 수 없었으나 우리를 동정하는 간수들의 묵인 하에 서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어떻게 하면 석방되어 이근택에게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그가 거짓으로 보고한 때문이 아닌가!”

처절한 정치적 패배의 현장 한성감옥서에서 그는 같은 입장이 동지들을 만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비치기 시작했다.

### 한성감옥에서 개종

본래 감옥 안에서는 일체의 독서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2 년 말에 이르러 한성감옥서 안에 도서실이 개설되고 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배재학당 출신 이승만의 개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탈옥했다가 다시 체포되어 종신형을 언도 받고 좌절감에 사로 잡혀있던 이승만은 배재학당의 아펜젤러로부터 잦은 방문과 감화를 받았고 그가 건네주는 성서와 기독교 문서를 읽으며 차차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 개종을 결심하였다. 아펜젤러 사후 배재학당장이 된 벙커(D.A. Bunker) 역시 그를 자주 찾았고 기독교 신문과 서적들을 감옥 안에 넣어 주었으며 신흥우의 부친이며 배재학당 교사인 申晷休도 그를 자주 찾아가 지도하였다.

거기에 새로 감옥서장이 된 金英善은 감옥 안에서의 독서와 학습을 권장하여 마침내 이승만, 신흥우, 梁義宗 등 죄수가 교사가 되는 감옥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승만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다행히 본서장 김영선씨와 간수장 리중진 박진영 량씨가 도입한 이후로 옥정도 차차 변하여 진보한 거시 만커니와 총명한 아해들을 교육할 일로 종종 의론하다가 작년 음력 구월에 비로소 각간에 잇는 아해 수십여명을 불너내여 한간을 치우고 가가거겨를 써서 읽히니 혹 웃기도 하고 혹 흥도 보고 혹 책망하는 자도 있는지라 도흔 일에 의례히 이러한 줄을 아는고로 여일이 일심하여 지금 반년이 못되었는데 국문은 다 잘 보고 잘 쓰며 동국력사와 명심보감을 배화 글씨쓰기와 뜻 알기에 어려서부터 배흔 아해들만 못하지 아니하며 영어와 일어를 각자 자원대로 가라쳐 성취함이 가장 속히 되었스며 외국 교사가 시험하여 보고 대단 칭찬하였스며...신약을 여일히 공부하여 조석 괴도를 더의 입으로 하며 찬미가 사오가지는 매오 들을만하게 언어와 행동이 통히 변하여 새사람 된 자 여러히매 어린 마음이 장래에 엇더케 변할년지는 알수 업스나 지금 밋을 만한 사람은 이 중 몇 아해만한 사람이 만치 못한지라.”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 성경공부까지 갖들인 기독교 학교였다. 매주일 벙커, 게일, 예비슨,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기독교 교리와 학습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을 위한 사설 도서실이 생겨났다. 이승만의 보고에 의하면 1903 년 3 월 현재 250 여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학생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에게도 읽히고 있었다. 이 도서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에 의해 넣어진 것으로 기독교적인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감옥 안에 이루어진 학교와 도서실이는 놀라운 변혁이었다. 이 변혁은 유성준을 비롯한 정치범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고도의 학문을 터득하고 있던 이들 정치범들은 무료한 시간을 독서로 보내기 시작했다. 유성준은 특히 李昌植을 통해 게일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어느날 연동교회 교인 이창직이 찾아와 한문 성서를 주고 갔다. 무슨 말인지 거의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읽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갔다. 거짓말뿐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읽곤 하였다”

최근 1903 년 1 월부터 작성된 「漢城監獄署 圖書出納臺帳」이 발굴되어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유성준은 1903 년 1 월부터 1904 년 3 월까지 94 회에 걸쳐 80 여권의

책을 빌어 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초기 독서 취향은 기독교보다는 정치, 역사에 관한 것들에 치중되어 있었다.

「天地奇異志」 「英興記」 「九九新論」 「印度史」 「我國政俗通考」 「中國度支考」 「地球一百名人傳」 「自西徂東」 「泰西新史」 「泰西十八周史」 「中東戰記」 등이 그가 주로 읽은 서적들이었다. 그러다가 1903년 3월이 되면서 서서히 기독교 서적을 빌어보게 되는데 「德慧入門」 「守望責言」 「格物探原」 등 한문으로 된 서적과 「그리스도신문」 「書會月報」 「神學月報」 등 기독교 정기간행물, 한문 「新約全書」와 한글 「신약전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13회에 걸쳐 신약전서를 빌어다 읽었다.

성서를 빌어본 기간은 10~20 일로 그의 성서통독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후기에 갈수록 그는 성서와 함께 「턴로력당」 「基督本記」 「二約釋義叢書」 「基督實錄」 「救主行述」 「救世教益」 「聖教功效論略」 「天路指南」 「聖經類書」 「正道啓蒙」 「安仁車」 「主從道」 「教訓諭說」 「女訓諭說」 「證眞秘訣」 「救世成全儒教」 「性理探源」 등 주로 한문으로 된 기독교변증서들을 읽게 된다. 특히 1904년 2월경에 읽은 「救世成全儒教」와 「性理探源」은 유교와 기독교의 진리를 비교 분석한 책으로 유학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 주었다. 이같은 많은 독서는 완고했던 유성준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었다.

“1년 동안 성서를 7번 통독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계속 술을 마셨고 내 죄는 생각지도 못한 채 당국을 욕하면서 지냈다.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라는 인물을 공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하게는 되었다.”

예수는 공자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야만인의 종교이며 따라서 斥邪의 대상이 되어 마땅했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가 이제 유성준의 마음속에 수백년 전통을 차지하고 있던 공자와 같은 차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1903년 11월 언더우드와 감옥으로 찾아와 설교한 후 유성준과 문답할 기회가 있었다. 언더우드는 그에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성준은 서슴없이 예수는 공자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답하였다. 1년 독서로 인한 놀라운 발전이었다. 적어도 예수는 배척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聖人으로 굳게 믿고 있는 공자와 같은 인물로 예수가 그에게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결코 공자 이상일 수는 없었다. 아직은 공자 수준 정도이거나 그 이하이다. 이것이 유성준의 한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윤치오를 꾸짖던 때와 비교하면 큰 변화인 것만은 사실이다.

1903년 11월 언더우드와의 대담에서 예수를 공자와 동격인 존재라고 고백한 유성준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언더우드는 유성준에게 예수를 직접 찾아보라고 권면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 하였습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기도란 목사들만 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 수 있겠소?’하였다. 그는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튿날에는 한문으로 된 기도책을 넣어주었다.”

유성준의 기도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성서와 「基督本記」 「基督實錄」 「救主行述」 「救世教益」 등 예수에 대한 서적을 집중 탐독했다. 그런던 어느날 드디어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기에 이른다.

“12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며 눈물이 콧 쏟아졌다. 지난 40평생을 죄악 가운데 보냈으며 나만 옳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으나 사실은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며 또 속으며 살았던 한평생이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마태복음 7장 9-11절을 읽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총과 구세주의 공로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 순간부터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구세주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한 평화로 가득찼다.” 예수와 공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유학에서 맛볼 수 없었던 평화,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거리낌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 하느님의 구속 은총, 그에 따른 마음의 평안이 감옥생활 20 개월만에 이루어졌다.

이같은 종교체험은 그 외에도 이상재·이원공·홍재기·김정식·신흥우·이승인 등에게도 거의 같은 무렵에 일어났다.

자연히 이들을 중심으로 감옥교회가 설립되었다. 주일마다 거행되는 예배는 감옥 밖 교회의 예배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이었다.

“그달(12 월) 말일에 우리는 감방에 함께 모여 이근택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이신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복수심을 버리고 오히려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근택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같은 감옥 안에서의 변화를 이원공의 아들 이능화(李能和)는 “地獄卽天堂”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三個星霜 鐵窓生活에 幽鬱慘愴하야 苦惱畢備러니 幸而獄法에 許看宗敎書籍하고 亦許洋人入獄布敎라 於是에 同監諸公이 相與研究新約全書하야 誓心決志하야 領洗受戒하니 是爲官紳社會信敎之始라”

변한 것은 감옥안의 사정만이 아니었다. 바깥 정세도 점차 풀리기 시작하여 수구파 세력의 퇴진과 함께 개화파 인사들의 득세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1897 년의 청일전쟁과 1904 년의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을 배경으로 한 세력이 득세하면서 옥에 갇힌 개화파 인사들도 석방되기 시작했다.

### 유배 생활

1904 년 1 월 이상재·이원공·김정식·홍재기·이승만·신흥우 등이 석방되어 풀려났고 이승인과 유성준은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유성준이 연루되었던 혈약서사건의 주모자 장호익과 조택현 2 인만 처형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배형이 선고된 것이 1904 년 2 월의 일이었다.

유성준은 태 1 백과 3 년 유배가 언도되었다. 그는 황해도 황주군 삼전면 철도(鐵島)에 유배되었다.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던 그는 황주읍 서리교회(西里敎會 1897 년 설립)에 정기 출석하는 교인이 되었고 김기황·이재정 등 교인들의 주선으로 황주 진위대장 최진태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보다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인들의 요청으로 교인 자녀들을 모아 학교까지 설립,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의 명성은 황주뿐 아니라 평양, 서울에까지 알려졌고, 리(G. Lee) 레이놀즈(W.D. Reynolds) 등 선교사들이 그를 찾아 내려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황주읍 교회뿐 아니라 인근 지방의 교회, 평양교회까지 방문하여 강연을 하는 등 죄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유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1905 년 4 월 중순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이제 유배가 끝났다 하는 것이었다. 꿈을 깬 후 혼자 생각하길 아직 유배기간을 채우려면 1 년 3 개월이 남았고 형도 아직 누명을 쓰고 일본에 잡혀 있는데 누가 내 석방을 위해 힘써 줄까? 헛된 꿈이려니 하였다. 그 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성서를 읽는데 한 학생이 달려 오며 선생님! 하는 것이었다. 그의 손엔 전보쪽지가 들려 있었고 그 내용은 이에 대한 사면 석방이었다!”

황주교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서울로 돌아온 그는 부인을 설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딸 각경(玉卿)을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다. 친구와 친척들이 그를 만류하고 회유했지만 그의 신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것이 되었다. 일가 유정수(柳定洙)가 찾아와 정부에서 기독교인을 임용하지 않을 것이란 말로 그를 회유하였을 때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는 관직도 맡지 않으리라”는 결의를 보였다.

그는 옥중 동지 이상재·이원공·김정식·홍재기 등을 찾았고 그들이 나가던 연동교회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로써 기독교인 유성준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 장로 도지사

유배에서 돌아온 후 그는 옥중에서 만난 신앙동지들과 협력하며 정치가 아닌 종교와 교육을 통한 사회 계발을 추진하였다. 그는 김정식 이원공 이상재 등과 함께 연동교회 계일목사의 지원을 얻어 「대한교육협회」를 창설하였고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교육부 위원으로 선임되어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또 틈틈이 준비한 국한문 성서 번역원고를 계일을 통해 성서공회에 보내 한국 최초의 국한문 성서를 발행(1906년)하였다. 이 성서는 식자층에게 널리 읽혀 기독교의 상류층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1907년 귀국한 형 길준에게 전도하여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었고 1909년에는 이원공 함우택 오경선 박승봉 등과 함께 양반계층의 교회인 안동교회 창설에 참여했고, 1922년에는 그 교회의 장로로 피택되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사회활동은 정계진출로 연결되었다. 1906년 봄 내부협관이 된 것을 시작으로 지방국장, 내각법제국장에 올랐고, 벼슬은 종 2품(從二品)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그는 관리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거나 위장하려하지 않았다.

“1906년 가을, 내각 중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무지와 무능함을 용서해 달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듣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으나 그중에는 애석하게도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종묘에서 매년 연례로 제사 지내는 일이 신앙 양심상 허락할 수 없어 관직을 사양한 적도 있는 공개적 기독교인 관리였다. 이 같은 그의 신앙자세는 1929년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다.

1909년 2월에는 서울의 기호(畿湖)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육일선에 서게 되는데 이듬해 흥사단에서 운영하던 융희(隆熙)학교와 기호학교를 병합, 중앙(中央)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 초대 교장으로 1910년까지 봉직하였다.

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수 형 길준이 비협조와 은둔으로 일관한 반면 유성준은 총독부 체제에 참여하여 계속 관직을 맡았다. 11년 충청도 도평의회장이 되었고, 21년 경기도 도평의회장이 되었으며, 같은 해 중추원(中樞院) 부의장이 되었다.

1926년에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되었고, 이듬해 강원도 도지사에 임명되어 1929년 초까지 활약하다가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중추원 참의로 계속 총독부 체제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유성준에게 이상과 같은 친일적 관료행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옥중 동지들이었던 이상재 이원공 윤치호 등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민족운동과도 관련을 맺었는데, 앞서 언급한 대한교육협회와 황성기독교청년회 활동 외에 1921년에는 윤치호 이재 이승훈 김석재 박승봉 등과 함께 광문사(廣文社)라는 출판사를 차려 한글 및 조선역사에 관한 도서들을 펴내 국민 계몽용으로 보급하였고, 1923년에는 기독교의 대(對) 사회운동인 물산장려 운동에 적극 참여,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이 되어 조만식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 1923년 민족 고등교육기관 설립운동이었던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상무위원이 되어 모금운동을 추진하였고, 1924년에는 이상재와 함께

조선소년척후단(오늘의 보이스카웃) 연맹 조직에 참여, 그 부총재로 청소년 계몽활동에도 크게 활약하였다. 같은 해 안동교회 안에 안국유치원도 설립하였고, 그 해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925년 YMCA 농촌부 위원, 흥업구락부 위원등을 역임하면서 민족운동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이같은 그의 사회적 교육·계몽활동은 3·1 운동의 열기가 가시면서 조선 민중, 특히 청년 계층에 허무와 좌절의분위기가 충일해져 갈 무렵, 그는 <靑年>지에 「深思하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쓰기도 했다.

“此時가 何時며 此日이 何日인고 세계를 비아하니 擇하여 執할 者얼마나 되며 辦하여 斥할 자 얼마나 되난가 靜히 慮하며 深히 考하라 舊慣에 중독되고 속습에 마취한 心神들을 무엇으로 치료하여 蘇醒케 할고 吾人의 靈性을 善養하여 종교의 진리로 기초를 정하고 哲人의 良規로 門路를 作할 것이 아닌가 思할지어다 思하여도 深思하자 思하면 得하나니 得할 것은 무엇인가. 萬障을 排하고 上帝께서 卑付하신 만물중에 貴且靈한 吾人의 地位를 回得하여 狂風怒濤에 屹然特立할 것이다. 深思하자 우리 동포여”

“貴且靈한 吾人의 地位를 회복”하는 길이야말로 당시 조선 민족이 원하던 유일한 희망이었고 목적이었다. 이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지위를 박탈해 간 일제를 향해 소리쳐 보았고 돌을 던져도 보았다. 그러나 비폭력·무저항으로 이루어졌던 3·1 운동은 인제의 무지한 폭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무기를 들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망명한 투쟁가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그러한 시점에서 어느누구보다 일본도 잘 알고 일제라는 통치체제 속의 일원으로 있었던 유성준이 민족을 향해 던진 “深思하자”는 말 속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깊고도 복잡한 의미와 사연이 있음직하다.

그는 1934년 2월 27일 서울 계동 자택에서 별세하였고, 장례는 서울 YMCA 회관에서 엄수되었다.